

# 성병(性病) 이야기

## 紙上강좌(10)



49 매독반응은 2기매독에서 잘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진단에 정확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을 앓고 있을 때도 매독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감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감염된지 2년후에는 척수액 검사에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50 매독의 진단은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들이 아주 약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별로 증상없이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신체검사시 혈청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진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51** 성병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비임균성 비특이성 요도염이라 하며, 모든 요도염의 50 %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인균은 분명치 않고 여러종류의균에 의해 생기는 데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오히려 많은 경험을 보입니다.



**52** 감염후 남자의 경우 1-4주 사이에 임질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도에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오고 가려울 뿐만 아니라 소변을 볼때 볼쾌감을 느끼기도 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 또는 방광염을 일으키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하며 질염 또는 자궁경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3** 연성하감은 매독에서 나타나는 경성 하감과 비슷하나 딱딱하지 않고 통증이 심한 케양들이 성기 주변에 나타납니다.

성행위를 한 3-4일후에 나타나는데 서혜부 암파선이 붓고, 통증을 느끼는 “가래듯”이 생깁니다.